

# 재즈로 찬불가 연주해요

한꽃예술봉사단, 6월1일 첫 공연  
무용단·재즈밴드·실내악단 동체

예향 광주에서 불교계 최초의 종합예술단이 창단된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 재즈, 실내악 연주자 가운데 불자들이 모여 '한꽃예술봉사단'을 결성하고 6월 1일 오후 7시 광주 KT 대강당에서 창단 공연을 펼친다.

한꽃예술봉사단은 불교무용단(단장 무화 스님), 재즈밴드(단장 유상호), 실내악단(단장 이정아)으로 구성되며 총괄 진행은 현장 스님(대원사 티벳박물관장)이 맡는다.

불교무용단은 불교 영상재에서 펼쳐는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등 불교무용과 화관무, 한춤 등 전통무용가 10여명으로 결성된다. 불교무용단은 창단에 앞서 5월 26일부터 4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 불교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중음악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재즈 밴드단은 드럼, 키타, 베이스, 피아노, 색스폰 등 5인조 밴드로 구성된다.

5년 전부터 광주 재즈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유상호 단장은 '재즈의



불교무용단 한꽃예술봉사단이 창단에 앞서 5월5일 부처님오신날 보성 대원사에서 공연하고 있다.

장점인 자유분방함과 즉흥연주의 맛을 살려 찬불가를 재즈로 연주해 대중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악 4중주 앙상블로 구성된 실내악단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 연주가 등 9명이 참여한다.

한꽃 예술봉사단 창단을 주선한 현장 스님은 "예술을 통해 세계가 한 가족임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국제문화수도 광주

에서 불자 예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 예술을 세계에 펼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금년중으로 후원회 결성과 법인화를 마치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꽃예술단 창단 기념 공연에는 티벳 나왕케츨 초청 공연이 함께 열려 불교명상음악도 선보인다.

글·사진/보성=이준엽 기자



건양대학교가 불교동아리법에 부처님을 모셨다. 사진은 불불법회 장면. 앞줄 가운데가 관속사 주지 태진스님, 왼쪽 옆이 김희수 총장.

## 학생 학교 사찰 뜻 모아 '점안'

### 논산 건양대 불불법회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에 법당이 꾸며졌다.

건양대는 5월 11일 교내 불교 동아리방에서 부처님 불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불불법회는 학생들과 학생 지역 사찰이 함께 뜻을 모아 이뤄졌다. 불교동아리의 불상 봉안 요청을 받은 김희수 총장이 논산 관속사 신도회와 김성주 김용남 교수(의과대

학) 등의 후원을 받아 불상을 조성한 것. 법회에는 관속사 주지 태진스님 김희수 총장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건양대 불교동아리(회장 김동준)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논산 관속사 교무실 원스님을 지도법사로 법회를 연다.

혜철 대전 총북 지사장

###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총북지사 : (043)732-5560

## 자비신행회, 불교상담교육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 스님)는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5월 27-28일 양일간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광주전남 불교기초상담교육을 실시한다.

호남지역 불교상담전문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상담 기본이론, 상담기법과 원리, 상담 현장 등의 교육이 총 1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062)234-2732

이준엽 기자

## 법주사 '솔잎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매월 한 차례씩 '주제가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5월 27-28일 '솔잎차 만들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1박 2일간 사찰에 머물며 직접 속리산의 무공해 솔잎을 채취해 차를 만들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며 속리산 생태문화 탐방, 스님과의 차 한잔, 새벽 솔길 산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솔잎차 재료와 용기 구입비를 포함해 5만원. (043)543-2776

혜철 대전 총북 지사장

## 참좋은우리절, 외국인노동자 초청 봉축한마당 축제 ...무료진료 실시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임)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70여명을 초청해 봉축한마당 축제를 펼쳤다(사진).

'부처님 자비로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봉축행사는 이주 노동자들이 육법공양을 올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봉축행사에 이어 한마당 축제에는 지역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 양, 한방 진료도 실시했다. 급년 봉축행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특별초청한 주지 회임 스님은 "낯설고 불쌍은 타향살이이지만 부처님에 의지해 힘을 내기바란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온누리 안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이나 혼혈아를 위한 진료봉사, 산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 광산구복지관, 주민 초청 자비의 날

광주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관장 정민숙)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 주민을 초청해 자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부처님 마음같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어울림 한마당에서 지역주민들은 가요공연, 어린이 댄싱 등 한마당 축제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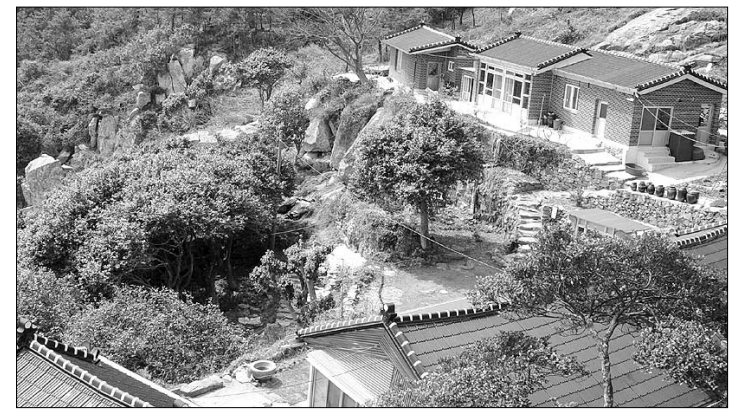
이준엽 기자

##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 섬 속에 절이 있네

청산도 백련암



동백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청산도 백련암 전경. 가운데 3채의 벽돌집이 선방이다.

## 깨달음 향한 푸른 꿈 넘치네

유일한 암자...700년 역사 간직한 참선도량

완도에서 뱃길로 50여분 거리에 자리한 청산도(靑山島)는 육지 사람들이 꼭 보고 싶어 하는 '꿈의 섬'이다. 관객 100만을 처음으로 넘긴 영화 '서편제'. 그 시작은 청산도 청보리밭 사이길이다. 화사한 유채밭에서 사랑을 피우는 TV 드라마 '봄의 왈츠' 무대도 이곳 청산도가 제공했다. 이렇듯 꿈을 그려가는 이들이 하늘, 바다, 산 모두가 푸르다는 청산도에서 푸른 꿈을 노래하곤 한다.

상고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청산도는 불교도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신동국여지승람 강진현 고적조에 따르면 "완도에 귀향 온 이영(1278년)의 숙부이자 출가한 해일 스님이 청산에 들어와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무려 700여년 전 일이다. 첫 가람은 대봉산 중턱 당리마을 뒤편이다. 이후 대선산으로 옮겼으나 화재와 빈대로 살지 못하고 대봉산 남쪽, 오늘날 자리로 옮겨 15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이 청산도 유일의 암자인 백련암(白蓮)이다. 암자에 오르면 가장 먼저 오래된 동백나무숲에 신고를 해야 한다. 숲 사이로 지나다보면 저절로 고개 속여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웅전과 옛 요사채는 흙과 돌을 섞어 지은 토굴이다.

불단에는 어느 어부가 정성들여 만들었는지 조개 장신구가 이곳이 섬 속의 절임을 느끼게 한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이들에게 사람은 태풍에 살아남고, 풍어를

기원하는 정신적 지주이다. 얼마 전까지 백련암도 그러했다.

그러나 13년 전 자한 스님이 이곳에 주석하면서 깨침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도량으로 탈바꿈했다. 선방을 다니며 정진하던 스님은 산철 없는 결제를 위해 수행터를 찾았다. 우연히 청산도와 인연이 되었고, 이후 어민들과 '번뇌를 녹이고 생사해탈하는 진짜 삶'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조개껍질로 만든 만(萬)자 장염물.

이곳에서 공부의 스승은 인연 율화사 송담 스님이다. 송담 스님에게 화두를 받아 정진하던 자한 스님은 백련암에 주석하면서 대웅전 위쪽에 작은 선방을 건립했다.

이제는 신도들도 '진짜공부' 하겠다며 절을 찾아 스스로 참선을 하곤 한다. 바다로 나가기에 앞서 법당에서 다리꼬고 앉았다 가는 이도 있다.

이준엽 기자

▲ 찾아가기: 완도 선착장에서 청산도행 배 이용(8시, 11시20분, 14시30분, 18시) - 도청리 부두에서 버스이용 부흥리 하차 도보로 30분.

##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예술이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灘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루다" (감탄하시었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교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함장

##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

